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23년 여름 · 81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3년 여름 81호

기획 / 함양 · 산청

- 04 | 지지 않고 나아가오
- 08 | 내 어찌 흠에 문힐 수 있으랴
- 12 | 산과 물이 그들을 이어주었네

문화칼럼

- 16 | 마우리치오와 미켈란젤로 겨루기

회원마당

- 20 | 안동 가는 길

답사기

- 24 | 강화도를 그리며 거제도 그리다

소재구의 도시 이야기

- 28 | 역사를 간직한 국제도시

박물관회 소식

- 32 | 2023년도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시상

숨은전시

- 33 | 바람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발행일 2023년 6월 7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 · 계운애 · 김문숙 · 문정원 · 서유미 · 정은정 진행 이명수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능월정

지지 않고 나아가오



일두 고택 솥을대문



일두 고택 안채 중문



일두 고택 안사랑채

굽이굽이 골짜기가 참 늠름하다. 덕유산 육십령의 휘도는 기운을 지혜로운 지리산 산줄기가 감싸 안은 함양, 골짜기 두런대는 솔깃한 소리가 그리워 이곳을 찾은 게 벌써 네 번째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삶의 환경을 ‘공간’과 ‘장소’로 구분한다. 자유롭지만 낯선 ‘공간’은 우리가 그곳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함양은 바로 그런 ‘장소’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함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세 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산이 갈지자형으로 둘러서 험지였던 그 옛날에는 은둔하기 안성맞춤이었다. 함양의 선비들은 화림동천의 아름다운 경관에 누정을 세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선비문화를 향유하였다. 선비들의 답사 일번지

인 이 비경은 특히 남명 조식의 화림동 유람으로 유명했다. 양지바른 땅 함양咸陽이 가진 기억의 끈을 따라가 보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숨을 고르고 마음을 버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시선을 만날 수 있다.

남계천 넓은 들판에 자리한 개평마을은 하동 정씨와 풍천 노씨가 모여 사는 씨족마을이다. 돌담을 따라 자연석 바닥에 매료되어 걷다 보면, 붉은 칠한 얇은 기둥의 홍살문 위로 충신, 효자 정려패가 다섯 개나 걸린 솥을대문을 마주한다. 조선으로 돌아간 느낌의 일두 고택이다.

좌안동과 견주는 우함양의 기틀을 세운 일두 정여창은 조선 전기의 유학자로 학덕이 뛰어나 5현으로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다. 그는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다 죽은 아버지를 찾아 전쟁터를 돌며 주검을 수습하고, 역병에 걸린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며 효를 실천하였다. 늘 몸가짐을 바르게 수양하고, 안음 현감 시절에 편의수십조便宜數十條를 지어 조세의 개선과 공평한 옥사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춘추로 양로례養老禮를 행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스스로 일두一蠹(한 마리 좀 벌레)라 칭한 호에서 광활한 우주의 한낱 미물인 나를 인식한 실천 성리학자의 내면이 엿보인다. 실천하는 선비가 모진 세월을 만나니 연산군의 스승이었음에도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두 번이나 죽임을 당한다.

“우리나라 현인들 가운데 오직 일두 선생만이 거의 흠이 없는 분일 것이다.” 늘 깨어 있고자 경의검義劍과 성성자桴槿子를 차고 다닌 남명의 평가는 믿음을 더한다.

높은 축대 위에 앉은 사랑채는 한쪽 뒷마루를 높여 누마루를 낸 ㅈ자 건물로 기품이 있다. 협문을 지나 작은 마당과 중문을 거치면 지면이 높은 안채가 나온다. 사랑채의 장대한 축대는 안채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쌓았나 보다. 중문의 낮은 문지방이 멋스럽다. 흰 곡선 부재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인들을 위한 배려도 엿보인다. 격식 있는 집답게 안채는 단아하면서 또한 개방적이다. 멋진 섬돌을 딛고 햇볕 잘 드는 마루에 앉으니 기분도 밝아진다. 사랑채 뒤편에 집안 노인들이 거처하던 안사랑채에서 하룻밤 쉬어 가는 기회를

가진다. 해 질 녘 느긋한 걸음을 발밤발밤 떼어놓으며 어른의 자취를 따라 걷는다. 여러 채의 한옥과 문, 마당과 텃밭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표정은 무심하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마당과 건물들이 서로 만났다 다시 나뉘면서 동선을 이끌어준다. 그리고 고택의 밤은 칙칙 같다. 열은 달빛이 머문 창호와 발정 난 고양이 울음소리만 고요를 이긴다. 이른 새벽부터 종손 어른이 사랑채에 장작을 지핀다. 세월을 머금은 고택의 나뭇결은 영롱한 햇살에 어찌나 어여쁘는지, 무심코 바라본 종손의 쓸쓸한 뒷모습에는 이길 수 없는 고단한 무게가 얹혀 있다.

사랑채 방향 2km 밖에는 남계서원이 자리한다. 일두 선생이 좋아했던 연꽃을 닮은 연화산 남쪽이다. 나지막한 연화산 자락 넓은 들판엔 마을과 마을 지킴이 사근산성이 있다. 남계서원이 이름을 얻은 남계천이 서원 앞으로 흐른다.



일두 고택 사랑채 창호



일두 고택 사랑채



개평마을 전경



남계서원 전경



풍영루에서 바라본 남계서원



교수정



화림동 계곡 거연정

1552년 정은, 강익 등 유림이 일두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세웠다. 일두 고택을 바라보던 개평마을의 소나무 군락지처럼 서원 뒤로 소나무 숲이 있다. 소나무와 선생의 삶이 겹친다.

서원의 얼굴인 풍영루風咏樓에 올라본다. ‘풍영’은 『논어』의 ‘위기지학爲己之學’ 즉, 나를 위한 공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두 선생과 그를 따른 성리학자의 세계관을 짐작해 본다. 강당 방향에 걸린 준도문遵道門이 그 뜻을 다시 새긴다. 풍영루의 화려함이 일두 선생과 괴리감이 들었지만, 대들보에 그린 황룡과 청룡의 꿈틀거림은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풍영루에서 공부하던 유생의 눈으로 서원을 바라본다. 교육을 위한 강당이 앞쪽에, 선현을 기리는 사당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 구조이다. 서원의 전형이 된 이 구조는 남계서원에서 처음 시작했고, 다른 서원들의 모범이 되었다.

유생들의 기숙사 양정재와 보인재에 누마루가 이어져 있다. 서원의 강학 공간에 연못을 두고서 아담한 유식遊息 공간을 마련한 것은 서원 건축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되어진다.’라는 뜻으로 진리를 향해 정진하는 명성당明誠堂은 ‘남계’와 ‘서원’으로 편액이 따로 걸려 시선을 끈다.

사당으로 가는 좁고 가파른 돌계단은 엄숙하다. 담 너머 소나무가 사당을 기웃거린다. 소나무의 시선으로 돌아선다. 너른 들판과 남계천의 풍광이 시원하고, 어디선가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시절 인연이 닿지 않았으나, 선생을 흠모한 퇴계의 『서원십영』이 서원 입구를 지키다.

당당한 천령 고을은 정공의 고향이다. 백세에 전해질 좋은 기풍을 영원히 사모하리라. 묘원에 모시고 존송하는 것이 진정 누가 되지 않는다. 문왕에 비길 만한 호걸이 어찌 없다 하겠는가?

완만한 물줄기가 너럭바위와 만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남계천 골짜기를 화림동이라 불렀다. 선비들이 꿈꾸는 정자 문화의 산실로 여덟 개의 정자가 여덟 개의 담 옆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거연정, 군자정, 동호정, 농월정만 남아 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메마른 날에도 맑은 물을 자랑하며 흐르는 걸 보니 ‘물 맑을 남瀦’이란 글자를 가진 남계의 힘인가 보다. 계곡 물가, 험한 산세와 툭 드러난 바위에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정자는 세월이 갈수록 주변의 노송과 닮아가는 것 같다.

안의면 비단 시내(錦川) 가에는 일두 선생이 중건한 광풍루가 들어서 있다. 함양의 선비들이 물가를 좋아한 걸까, 이른 조선에 지은 정자가 물가에 위치한 걸까? 함양의 정자는 배산임수를 지향한 조선 후기의 정자들과 좀 다르다. 개평마을에서 멀지 않은 지곡천 야트막한 언덕에도 허리가 흰 노송에 둘러싸인 정자가 있다. 조선에서 고려의 신하

로 은거했던 두문동 72현 중 한 분인 덕곡 조승숙이 1398년 함양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교수정이다. 같은 해 고려시대 경학을 가르치던 소소당 터에 함양향교를 건립하였는데 그가 『명륜당기』를 작성하였다. 목은 이색, 아은 길재와 왕래하고 성리학을 강론하며 25년 세월을 보낸 그가 함양에 있어서 후대에 일두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성종은 덕곡의 충절을 귀히 여겨 ‘수양명월 율리청풍首陽明月 栗里靑風’이란 제문을 하사했다. 자연 암반에 글씨를 새기고 거북 머리를 조각한 비가 서 있다.

집은 주인의 얼굴이다. 유명 현감들이 거쳐 간 안의면에는 사람을 닮은 귀여운 도깨비 망와가 반기는 집이 있다. 허삼들 고택은 진양 갑부 허씨 집안 허삼들이 윤대흥에게 시집와 1918년에 지었다. 전통 가옥에는 안주인의 이름을 딴 집이나 안채의 비중이 큰 사례가 없었다. 팔작지붕이 ㄱ자형으로 된 안채는 부엌에 중심인 어칸을 두고 좌우가 대칭인 구조이다. 부엌 통로는 단을 낮춰 접근성도 좋다. 신분제 철폐와 부농층 출현이라는 사회 변화를 담은 집으로, 사대부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배치가 주목할 만하다.

함양, 그 삶의 터전, 내력, 의미들을 수록한 『함양군지』가 있다. 이곳 민초들의 기록이 짧은 것이 아쉽지만 작은 발자취를

아껴 볼 수 있다. 『함양군지』는 일두 선생의 증손인 춘수당 정수민이 임진왜란으로 군지가 소실되자 『천령지』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모태가 되었다. 삶의 방식이 다르면 생각의 방향도 다르겠지만, 도리를 실천하는 선비들이나 작은 목소리의 여성이나 변화의 바람 앞에서 지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려는 용기는 양지바른 땅에 울림이 된다. 🌍

정은정 회원



『서원십영 남계서원』



허삼들 고택 안채와 솥을대문 망와

내 어찌 흠에 묻힐 수 있으랴

어릴 때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도 좋던지. 지금도 고리타분하다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오랜 세월이 곰삭아 있는 옛것에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전傳 구형왕릉 또한 그런 이유로 한동안 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은 나의 발길을 산청으로 이끌었다. 전 구형왕릉과의 첫 인연은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익히 보아오던 왕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막 쌓은 듯한 돌무더기가 왕의 무덤이라니. 생소함에 호기심이 일어났다. 일부러 다듬지 않은 막 쌓은, 비바람을 견뎌낸 세월이 허물어져 흐트러진 듯한 검회색의 돌무더기가 은근히 강하게 와 닿았다.

돌이 주는 묵직한 느낌 때문인지 차마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은 응어리를 홀로 삭이듯 돌덩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색깔처럼 무겁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의문과 모호함의 연장선 너머로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신비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전 구형왕릉



전 구형왕릉 감실



전 구형왕릉 각자

늦은 오후 수수께끼의 무덤 전 구형왕릉을 찾아가는 길목엔 인적이 없다. 패망한 나라, 가락국의 자취를 더듬어 가는 길이라 그런지 인적 없는 산길은 쓸쓸함을 더한다. 돌무덤에 다다르니 지금까지의 쓸쓸함은 고요 속의 평온으로 바뀐다. 야트막한 산기슭에 자리한 돌무덤은 견고한 안정감으로 더없이 평온하다. 1500여 년이란 아득한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와 순간 절로 숙연해진다.

구형왕(仇衡王) 그는 누구이며, 왜, 무슨 기막힌 사연으로 한 나라의 왕이었던건만 흠이 아닌 돌무더기 아래 잠들어 있는가. 구형왕(521년~532년 재위)은 신라 법흥왕에게 나라를 내주기까지 492년 동안 유지되었던 가락국 10대 마지막 왕으로, 신라와의 전쟁에서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고 자 자신해 항복했다 하기도 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끝까지 싸우다 군사적 열세에 몰려 결국 항복했다고도 한다. 한 쪽은 자진해서 항복했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결사 항전하다 항복했다 하는데 어찌 되었든 구형왕은 나라를 잃은 비운의 왕이다.

불운한 구형왕의 무덤은 사료 부족으로 인해 구형왕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 구형왕릉'이라 불린다. 『세종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산청현읍지』 등에 '현의 40리 산중에 돌로 쌓은 구릉이 있는데, 사면이 모두 층계로 되어 있고 세속에는 왕릉이라 전한다.'라는 기록과 '무덤의 서쪽에 왕산사포

山寺라는 절이 있고 이 절에 전해오는 『왕산사기』에 구형왕릉이라 기록되어 있다.'는 조선 후기 문신 홍의영의 『왕산심릉기』의 기록을 근거로 대체로 구형왕릉일 것이라 보고 있다. 구형왕릉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왕산사기』가 1798년 왕산사의 나무 상자에서 발견되었으나 전해지지 않아 구형왕릉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료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돌무더기 모습의 전 구형왕릉은 얼핏 보면 피라미드가 연상되지만 경사진 언덕 중턱에 비탈진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여 돌을 쌓아 올린 점이 평지에 세워진 피라미드와 다르다. 총 7단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꼭대기가 봉분처럼 타원형



의성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



김유신 사대비

의 반구를 이루고 있다. 특이하게 넷째 단의 가운데에 감실 모양의 작은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 용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잘 다듬고 딱 맞게 끼워 맞춘 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주변에 나뒹굴던 잡석을 주위 무심히 쌓은 듯해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지만 나라를 잃은 비운의 왕, 패자의 잊혀진 역사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왕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약소해 안쓰럽고 씁쓸하다. 후손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 구형왕릉처럼 막돌로 담을 쌓아 능 주위를 두르고, 앞 중앙에

‘가락국양왕駕洛國讓王’이라 새긴 비석을 세웠으며, 석등과 석단 좌우로 문·무인석과 석수를 두어 왕릉을 수호하도록 하여 왕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한편 이 돌무덤은 이채로운 모습 때문에 석탑 또는 제사를 지내던 제단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석탑으로 보는 근거는 외형과 입지 조건이 비슷한 의성과 안동의 방단형 적석탑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구전에 의존해 왕릉이라 보는 견해가 더 많다. 석탑인지 제단인지 왕릉인지, 왕릉이라면 가락국 구형왕의 능이 맞는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 의문투성이의 돌무덤은 세간의 왈가왈부에 아랑곳없이 그저 깊은 침묵으로 굳게 닫혀 있다.

전란에서 백성을 지키고자 어려운 결단으로 나라를 넘기긴 했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무덤에 흠을 얹지 말고 돌로만 덮으라고 한 구형왕의 울분과 통한을 아는지 새들도 능 위로는 날지 않고 들짐승들도 드나들지 않으며 칠푼쿨마저 비켜 뺀어 나가고 낙엽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한다.

전 구형왕릉을 내려와 덕양전으로 가는 길목에 김유신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곳임을 알려주는 사대비射臺碑가 서 있



춘추 대제



덕양전

다. 김유신은 구형왕의 증손자로 젊은 시절 구형왕릉을 돌보며 무예를 익혀 훗날 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룩한다. 그는 구형왕과 비妃 계화왕후가 머물렀던 수정궁터에 세워진 왕산사를 구형왕과 선대 왕들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 삼고 왕릉 옆 터에 단을 쌓아 수정궁을 옮겨 짓고 제향을 받들었는데 지금 덕양전의 모태가 된다. 수정궁은 고종 15년(1878년)에 덕양전으로 이름을 고쳐 짓고 오랜 세월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제향을 받들기에 협소해 1928년 지금의 장소로 옮겨 지었다. 덕양전은 김수로왕의 별궁인 태왕궁을 본떠 지었으며 조선 정조 17년(1793년) 왕산사에서 발견된 구형왕과 계화왕후의 초상화와 의복, 활, 칼 등을 보관하고 있다. 매년 봄 가을에 춘추 대제를 지내고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 향례를 올린다.

전 구형왕릉을 중심으로 주위에 가야 고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생초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고분군이 자리 잡은 위치와 규모, 출토 유물로 보아 가야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한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내판을 보고 겨우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원래는 100여 기 이상의 고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개간과 도굴로 대부분 훼손되어 지금은 능선을 따라 몇 기만 남아 있어 명색만 고분군일 뿐이다. 그나마 고분군 앞으로 멀리 경호강이 흐르고 너른 들판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어 조금이나마 송구한 마음을 애써 추스른다.

형형색색의 고운 꽃으로 한껏 꾸민 생초국제조각공원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이는 생초 고분군의 모습과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가락국의 마지막이 연결되어 돌아서는 뒷맛이 영 씁쓸하다.

어스름 저녁 빛이 내려앉을 무렵 숲으로 둘러싸인 왕릉은 그지없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동안 애처롭고 무거웠던 마음이 험거워지며 나지막이 아련다.

이제 가슴을 내리누르던 죄책감도, 나라를 잃은 원통함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편히 잠드십시오. 억울하고 힘든 마지막 결단이었지만, 덕분에 후손들이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형왕 당신의 마지막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

계윤애 회원



생초 고분군

산과 물이 그들을 이어주었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덕산 장날이었습니다. 지리산 남동쪽인 지금의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일대를 예전엔 덕산이라고 불렀는데, 지리산 천왕봉 아래 사는 주민들은 이 덕산장에 지리산의 약초와 산나물 등을 갖고 나와 남강과 덕천강을 따라 올라온 생필품과 먹거리를 구해 갔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선 각종 나물과 약재, 벌꿀과 각종 임산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고 아침식사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선 오일장에서 지나칠 수 없는 껌배기 한 봉지를 손에 쥐고 답사를 나섭니다.

마냥 평화롭기만 했던 것 같은 이 덕산장에서 진주 민란의 서막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듭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아무리 관에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자 철시撤市, 즉 장날에 장시를 닫아버리고선 무리 지어 덕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중에 곳곳에서 일어난 세력들과 규합하여 수만 명으로 불어난 농민군은 부정한 향리들과 토호들을 응징하면서 진주목 관아와 경상 우병영으로 향

했습니다. 그들은 시정을 바로 잡고 악질 향리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열흘간의 봉기 끝에 일시적이거나 어느 정도 회유책도 펼쳐졌지만, 주동자들은 처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장시를 통해 인근 고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한 고을인 함양을 필두로 거창, 성주 순으로 철종 13년(1862년)에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방곡곡으로 퍼진 임술농민봉기는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임술년에 가장 먼저 봉기한 지역은 따로 있었는데, 덕산의 동쪽에 자리한 단성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 단성향교로 갑니다. 이곳에서 단성 농민 봉기의 구심점이 된 향회鄉會가 열렸습니다. 왜 농민 봉기가 나라에서 세운 향교나 양반들의 모임인 향회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향교는 향반鄉班들의 활동 무대였기에 이들은 향교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이들이 단성 봉기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폐단에 가중된 수령과 아전들의 수탈에 분개했던 것



단성향교



단성향교 대성전

은 민초들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 뒤에 일어난 진주 봉기 수습에 정신이 팔려 단성 쪽에는 관심을 쏟지 못하는 동안 이들은 백여 일간 지역 행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로부터 32년 후인 갑오년엔 전라도로부터 동학 농민전쟁의 물

결이 이곳까지 거세게 들이쳤습니다. 뒤이어 지리산을 근거로 한 항일 의병 투쟁이 펼쳐졌고, 기미년엔 3.1 만세 의거와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낸 유림들이 대거 투옥되는 파리장서사건 등 격동의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면서도 정말 마음 아픈 사실을 산청 관광안내 지도를 살피다가 발견했는데, 빨치산 토벌 부대가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산청 · 함양사건 추모공원’과 ‘지리산 빨치산 토벌 전시관’이 같은 지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은자隱者의 고장인 줄만 알았던 이 지역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정반대의 면모에 놀라게 됩니다.

다시 아침나절 덕산시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껌배기를 입에 물고 향한 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덕천서원이었습니다. 남명 조식의 위패를 모신 서원인데, 1920년대에 지역 유림들이 중건한 거라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는 남명이 심은 것이라 전해집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으나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앞서 언급한 사건들을 이해해 보려고 검색을 하면 할수록 자꾸 떠밀려 올라오는 이름이 바로 남명 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흔적을 더 찾아보려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덕천서원 사당



덕천서원 경의당 현판



산천재에서 바라본 지리산



산천재와 남명매



남명기념관



경의검(복원)



성성자(복원)

그는 지리산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무려 열두 번이나 지리산에 오른 후, 천왕봉이 보이는 덕산에서 말년을 보내려고 산천재를 짓고 마당에 매화를 심었습니다. 산청 3매중 하나인 수령 462년의 남명매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남명기념관은 살림집이 있던 곳입니다. '칼 찬 선비'라는 남명의 별명이 워낙 인상적이라, 그가 지니고 다니던 경의검(義劍)이라는 칼과 늘 꺼어 있는 마음가짐을 위해 항상 지니고 다녔던 한 쌍의 방울 성성자(摐摐子)를 보러 갑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분실하여 복제품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장검도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1950년에 인민군 장교가 차고 다니는 것을 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검에 적혀 있는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라는 글이 늘 실천을 강조했던 그의 사상을 요약해 줍니다. 아침에 갔었던 덕천서원 강당 이름도 경의당(敬義堂)이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거듭되는 관직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처사로 지내면서도 누구보다도 세상사를 날카롭게 분석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남명이 조선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그가 양성한 후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타계한 지 20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일어난 의병장들 중 56명이 객재우와 정인홍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 함양 황석산성 전투에서 호남으로 진입하려는 가토 기요마사에게 저항하여 비록 패배했지만 장렬하게 싸웠던 우국지사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우국충정만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으니 모두들 스승을 따라 칼을 찾던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든 시절에 한양도 아닌 지리산 자락에서 어떻게 그러한 통찰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는 성리학에만 매몰되지 않고 노장사상을 비롯한 모든 학문과 사상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었는데, 아마도 그 덕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선종 사찰인 단성의 단속사에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승려들과 교류했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기거하던 그에게 배우려는 제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남명이 거주했던 낙동강 서쪽 경상우도뿐만 아니라 호남의 선비들까지 그의 제자가 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정인홍을 비롯한 복인 계열이었던 그의 제자들이 몰락한 이후 남명이 한때 역사에서 거의 잊힌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 제자들의 후예들은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 속에서 계속하여 떠올랐습니다.

산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들른 생초면의 가야고분군 근처에서 어탕칼국수를 먹고 나와보니 경호강(남강)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강을 바라보면서 현대인에게 강이란 수많은 대교가 걸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처럼 단절의 상징인데, 다리 하나 없었던 옛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통의 길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 진주, 거슬러 올라가면 함양, 그리고 지류인 위천을 따라가다 육로로 좀 더 가면 전라남도 남원의 인월이 나옵니다. 지리산 문화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이 큰 산 둘레길을 따라 만나고, 거래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사상을 공유하고, 필요할 땐 같이 산속에 숨어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발원한 강을 따라 교류하고 힘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남명



단속사지 삼층석탑

이 산골에 앉아서 세상사를 꿰뚫고 있었던 것은 이곳이 보기와는 달리 열린 고장이었던 덕분인데, 반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곳을 관통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절의 상징일 것 같은 산과 강이 서로 통하고자 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그 길을 내어줄 수도 있음을 이 고장에서 배우고 떠납니다. 🌍

서유미 회원



생초면에서 바라본 경호강

마우리치오와 미켈란젤로 겨루기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는 리움에서 열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1960~)의 개인전 《우리We》이다. 카텔란은 서양미술사의 유명작품을 슬쩍 가져다 본인의 방식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능숙한 작가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풍자satire와 비판이라는 키워드로 자주 해석되지만, 이 글은 유명한 혹은 명작을 자신의 작품으로 가져오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카텔란은 이탈리아 파도바 출신으로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와 청소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가난하게 성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22살 때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투병 중

에 환시를 경험하고 이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혀 파도바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수녀가 된 누이가 있는 점을 미루어 신실한 집안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시체안치실에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20대 초반 포를리Forlì에서 가구디자이너 일을 시작했다. 카텔란은 파도바의 한 갤러리에서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Michelangelo Pistoletto(1933~)의 전시를 보고 예술가가 되기를 결심했다. 그의 첫 작품은 1989년 <가족 구문Lessico Familiare>이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벌거벗은 가슴 위에 손 하트를 만든 자화상이다. 이후 그는 인쇄물, 레디 메이드 오브제, 박제 동물, 사실적인 밀납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펼쳤



<그림1> 마우리치오 카텔란, <무제Untitled>, 2001 ©정은진



<그림2> 마우리치오 카텔란, <9번째 시간La Nona Ora>, 1999 ©정은진

다. (그림 1) 무엇보다 그가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작품은 운석을 맞고 쓰러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r. 1978~2005)를 재현한 <9번째 시간La Nona Ora>이다. (그림 2)

운석에 맞은 교황

‘야혹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한 시간이다. 즉 신의 아들이자 신이 죽은 시간이기도하다 <9번째 시간>은 1999년 스위스의 바젤 쿤스트할레Kunsthalle Basel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교황은 전시장 채광창을 뚫고 들어온 운석에 맞아 붉은 카펫 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다. 운석 때문에 쓰러진 교황이지만 전례에 사용하는 이동용 십자가를 꼭 쥐고 있다. 천장의 창을 통해 운석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교황의 주위로는 유리 파편들을 설치했다. 이 작품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01년 바오로 2세의 고향인 바르샤바 자행타 국립미술관Zachęta National Gallery of Art에서 전시되었을 때 폴란드 의회에서는 전시를 반대하는 서명이 있었고, 당시 미술관장이었던 유대인 안다 로텐버그Anda Rottenberg(1944~)는 사임하였다. 당시 폴란드의 알렉산데르 크바스니에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1954~) 대통령은 이 작품이 교황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한 알레고리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카텔란은 교황이라는 직책이 상징하는 권위 그 자체를 다룬 것이며 교황도 신의 섭리를 따르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작품에 대한 여러 해석보다 주목할 점은 유명인을 작품의 소재로 끌어들이자 신이 더 유명해진 카텔란의 전략이다.

이동하는 시스틴 채플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에서 연 회고전 《모두All》를 끝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했던 카텔란은 2018년 상해 유즈미술관Yuz Museum에서 전시 《아티스트가 존재한다The Artist is Present》를



<그림3> 마우리치오 카텔란, <무제untitled>, 2018, 나무에 아크릴릭 ©정은진

기획했다. 그는 이 전시에서 시스티나 성당의 내부를 이동 가능한 형태로 축소 제작한 <무제>를 전시했다. (그림 3) 이동 가능한 시스티나 채플이라니! 그동안 시스티나 채플 내부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옮겼던 시도는 종종 있었지만, 채플을 통째로 제작한 작품은 처음일 듯하다. 카텔란이 제작한 시스티나 채플은 392.7x713.2x272.4cm로 소나무 목재와 강철로 만들고 내부에는 벽화를 그렸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채플이 1340x4090x2070cm이므로, 비율이 정확하게 축소되지는 않았다. 그는 원작과의 스케일 문제를 고민한 것 같지는



〈그림4〉 시스틴 채플 서측 입구

않다. 그리고, 내부의 벽화는 그의 조수들이 밀라노에서 아크릴로 그렸다. 그는 이 작품을 3점의 에디션으로 제작하였고, 한국에 전시된 것은 그중 한 점이다. 카텔란은 서양미술사의 여러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빌려오고 재해석하여 그만의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는데, 명작 중의 명작인 시스틴 채플을 택한 것이다. 시스틴 채플은 카텔란의 선택과 조수들의 솜씨로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세계 곳곳으로 이동한다. 미술에서 원본Originality이라는 개념은 뒤샹Marcel Duchamp(1887~1968) 이후로 사라졌다. 오히려 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예술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카텔란의 〈무제〉 원본인 시스틴 채플은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공식 거처인 사도 궁에 있는 작은 예배실로, 교황 식스투스 4세 Sixtus IV(r.1471~1484)가 1473~81년에 교황이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림 4)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시스틴 채플뿐 아니라 바티칸 도서관을 세운 르네상스 교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시스틴 채플은 교황이 미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이면서, 교황의 관이 장례미사가 열리는 베드로 대성전으로 이동하기 전,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제단 앞에 잠시 머무는



〈그림5〉 시스틴 채플, 1480년대 천장화를 그리기 전을 재구성한 드로잉

곳이기도 하다. 또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장소이다. 식스투스 4세는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c.1445~1510), 페루지노Pietro Perugino(c.1446/1452~1523), 핀투리치오Pinturicchio(1454~1513), 기를란다요Domenico Ghirlandaio(1448~1494), 로셀리Cosimo Rosselli(1439~1507)와 같은 화가에게 벽면을 장식하는 프레스코를 그리게 했다.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1508~12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 Julius II(r.1503~1513)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다.

한편 제단화 〈최후의 심판〉은 교황 클레멘스 7세Clement VII(r.1523~1534)의 주문으로 1535년 시작하여 1541년 교황 바오로 3세Paul III(1534~1549) 재위 시기에 완성되었다. 천장화는 성서의 시작인 창세기의 주요 아홉 장면을, 제단화는 성서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 묵시록을 시각화하였다. 창조와 종말이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주제 사이에는 1527년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Karl V(1500~1558)가 로마를 침략하여, 당시 로마 인구 오만 오천명 중 만 이천명이 학살되는 대참사Sacco di Roma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작가가 그렸음에도 두 작품의 분위기와 양식이 사뭇 다르다. 특히 〈최후의 심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창을 막아 벽으로 만들었다. (그림 5)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근육이 잘 단련된 그리스 운동자의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시 일부 추기경들은 이 프레스코를 검열하고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림 6)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리움 전시에서는 〈9번째 시간〉이 시스틴 채플의 모형 앞에 배치되었다. 운석을 맞고 쓰러진 교황은 근육질 청년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그리스도와 카텔란의 교황 중 어느 것이 더 획기적일까? 미켈란젤로와 마우리치오는 누가 더 악동일까? 🐼

정은진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강사



〈그림6〉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최후의 심판 세부 : 그리스도와 마리아〉, 1536~1541, 프레스코, 13.7m×12m, 시스틴 채플, 바티칸



마우리치오 카텔란, 〈9번째 시간〉, 1999, 리움 ©정은진

안동가는 길

작년 가을, 아주 오랜만에 답사에 나섰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켜켜이 쌓인 곳, 안동. 이곳저곳을 보고 또 보며, 옛사람들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퇴계를 만나다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학자, 퇴계 이황(1501~1570)의 자취는 450여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옛적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몸으로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자성록』1558).” 한 획을 내리고 한 글자를 이룰 때마다, 몸이 글자를 따라줄 것인지 속으로 묻고 또 물었을 선생의 편지는 삼천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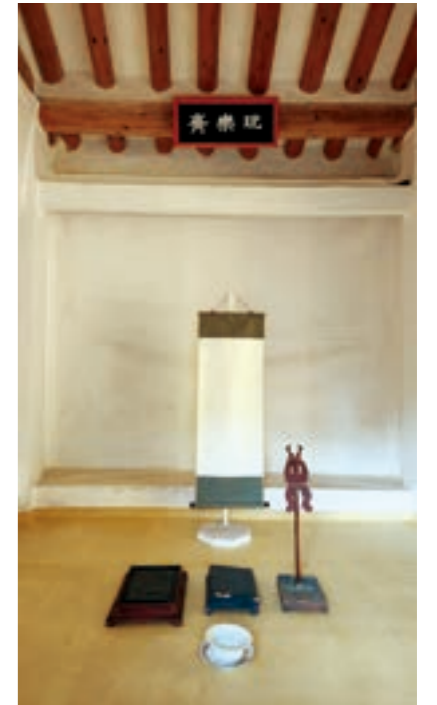
네가 산사에서 별 탈 없이 공부하고 있다 하니 매우 기쁘다... 네 아내가 지어 보낸 단령을 받으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만 어려운 살림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니 오히려 편치 않구나... 하얀 접는 부채 두 자루와 등근 부채 두 자루, 참빗 다섯 개, 먹 한 개, 붓 한 자루를 보낸다. 접는 부채와 참빗은 너의 처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퇴계의 학덕을 기리며 정조가 안동에서 과거시험을 거행한 곳, 시사단



절제된 꾸밈의 세 칸 집, 도산서당



퇴계의 한 칸 방, 완락재

선생이 첫째 아들 이준(1523~1584)에게 보낸 글을 펼칩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사대부는 ‘과거시험 수험생’ 아들과 한 땀 한 땀 시아버지의 ‘근무복’을 지었을 며느리에게 애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장손 이안도(1541~1584)가 혼인할 때는 ‘상경여빈相敬如賓’을 말합니다.

무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의와 존경심을 잊어버리고 버릇없이 모욕하고 거만하고 인격을 멸시해버린다.

‘손님 대하듯 공경해라’, 선생이 강조한 부부의 도리입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없는 다음에야 남을 나무란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일찍이 경험한 바를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두 번 장가들었는데, 한 번은 매우 불행한 경우를 만났지요.

그러나 이러한 처지에서도 마음을 야박하게 먹지 않고 잘 지내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산란하여 그 번민을 견디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대는 반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뉘우쳐 허물을 고쳐야 합니다.

종전의 태도를 끝내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학문을 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전라도 순천 출신으로 퇴계 말년의 제자인 이함형(1550~1577)이 집에 간다 하니 69세 스승이 붓을 듭니다. 곁봉에 ‘노차물개간(길에서 뜯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뜯어보라)이라 적힌, 20살 제자에게 준 편지는 부부관계가 잘못되는 데는 아내보다 남편의 책임이 크며, 정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파경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전합니다.

두 아내와 사별한 선생의 말씀이 세찬 바람처럼 준엄하다 싶는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따사로운 햇살이었던지 나이 차 많은 어린 제자는 이후 데면데면한 사이에서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의 글을 생각하며 도산서당, 퇴계의 태실이 있는 노송정 종택 등을 찾으면 나지막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릴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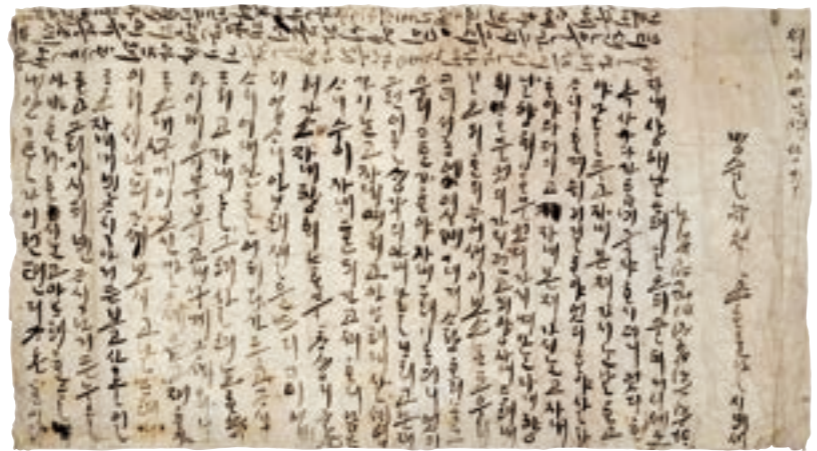
원이엄마를 만나다

자네 상해 날드려 날오되
 들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네 묻져 가시노
 날하고 자식하며 뉘기 걸하야
 엇디하야 살라하야
 다 더디고 자네 묻져 가시는고...

단아하게 써 내려간 옛 한글에 담긴 절절함이 400여 년을 훌쩍 넘습니다. 이는 1998년 안동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분묘이장을 하던 중 한 고성 이씨 남자의 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31살에 세상을 등진 남편 이응태(1555~1586)에게 아내가 보내는 답장 없는 편지로 밝혀집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희어질 때까지’ 살자는 약속을 저버린 남편에게 꿈에 와서 모습을 보여 주기를 부탁한 글이 안동, 두 글자와 나란히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응태가 부친과 주고받은 편지는 당시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자내(자네)’는 상대를 높이거나 동등하게 대하는 말로, 이 두 가지는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조선중기 시대상을 방증한답니다.



원이엄마 편지글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응태가 나고 자란 귀래정歸來亭, 무덤 부장품이 전시된 안동대학교 박물관과 편지글을 소재로 한 테마공원에서 남편의 쾌유를 바라며 본인의 머리카락을 섞어가며 미투리를 삼았던 여인을 생각합니다.

성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원이엄마’로 기억되는 그녀, 이리저리 둘러가며 빼곡히 적어 내려간 편지글에 미처 쓰지 못한 말은 무엇일까요? 훗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지는데 아버지를 잃은 원이, 유복자와 함께한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덴동어미를 만나다

내방가사, 조선 시대 주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지은 문학의 한 형태로 영남대가 내방가사嶺南大家內房歌辭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내방가사 전승과 보존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있으며 현재 두루마리에 한글 궁서체로 쓴 6천여 필의 작품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덴동어미화전가 ©경북대학교 도서관 고문서실

그 가운데 여성의 놀이문화를 보여주는 「화전가花煎歌」를 봅니다.

봄날 경치 좋은 곳에 모인 여성들은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장기자랑도 하고, 이를 가사로 썼습니다. 4·4조가 기조로, 글에는 ‘이야~더랴·어화~더랴’, ‘두어랴·긋처랴·어화’를 넣고 ‘일장춘몽’·‘남가일몽’ 등을 붙인 후, 끝에는 연대 및 간지干支, 지은이의 택호宅號, 가사를 짓게 된 연유,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와 경계의 격언을 쓴다고 합니다.

가세가세 화전가세 꽃지기전 화전가세
 이때가 어느때가 때마침 삼월이라
 봄의신이 은택퍼니 따뜻하여 때가 맞고
 꽃바람이 화공되어 만화방창 단청갈네
 이런때를 잃지말고 화전놀이 하여보세...

본래 「화전가」이나 주인공을 밝혀 「덴동어미화전가」라고 부르는 이 가사에서 ‘덴동어미’는 ‘봄에 덴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번 결혼하였지만 남편 모두 세상을 떠나고 다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덴동어미. 그녀는 세상사가 귀찮기만 하고 살 뜻이 없었지만 이웃의 위로에 힘을 얻고 4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덴동어미는 화전놀이에 옛 한 고리 이고 가서 신명나게 노는데, 한 청춘과부가 신세를 슬퍼하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삶과 죽음, 가난 등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행복하기만 하거나 불행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고 주변 여성들에게 전합니다. 가사는 참석한 여성의 이름 하나하나를 말하며 모두가 저마다의 봄을 간직한 귀한 존재들이라 적습니다.

흠날리는 꽃비를 맞는 여성들이 울음과 웃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봄나들이에 하루해는 짧기만 했을 겁니다.

안동을 찾으며 퇴계 선생, 원이엄마, 덴동어미의 글을 그려모아 보았습니다. 성별, 나이, 신분, 처지가 천양지차인 세 인물이지만 글이 품은 인생사 편린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네 마음을 울리는 것은 다르지 않다 싶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물든 단풍이 그들이 겪은 회로애락의 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동을 떠나는 발길에 걸어지는 가을날의 그림자가 동행합니다. 🍁

문정원 회원



광성보 용두돈대

강화도를 그리며 거제도를 그리다

2019년 말쯤에 시작된 코로나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없었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었기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회의 고적답사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2023년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살며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470회 답사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희망 속에 답사 정원은 속전속결로 차버렸고, 증차까지 해가며 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박물관회의 회원들 열정 앞에서는 따뜻한 봄바람 수준이었다.

필자는 이번 답사가 첫 답사였는데, 대부분의 연령이 불혹不惑을 지나 지천명知天命을 향하고, 이순耳順과 종심從心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열정은 지학志學과도 같았다. 공자가 배움의 시작은 뜻을 세웠을 때라고 했던 말을 생각한다면, 배움에는 끝이 없고, 청년과 만학도晩學徒의 열정은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 470회 고적답사는 회원들에게는 2년 만의 답사이자, 나에게서는 입사하고 첫 답사로 기록될 것이며,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누구나 반갑게 맞이했으리라 생각한다.



광성보 쌍충비각

강화도로 간 470회 고적답사의 시작점은 광성보였다. 광성보 하면 아무래도 신미양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미양요는 1866년에 발생했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다. 이때 전사한 어재연과 어재순 형제와 무명용사들의 무덤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당시 조선을 생각해 보면,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쇄국정책에 대해 여러 아쉬움을 갖게 된다. 이런 아쉬움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지만, 역사학자 콩트가 중세 암흑기를 부정하지 않았듯이, 오늘날의 한국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한 번쯤은 지난날이 남기고 간 유산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소는 강화도에서 가장 큰 절인 전등사이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한 진종사가 그 기원인 만큼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사찰이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정족산 사고史庫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가 조선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실록의 기여가 크다.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 사고가 소실되었지만, 전주 사고본은 오히길과 유신, 안의, 손흥록의 공로로 지킬 수 있었다. 이에 전주 사고본을 재인쇄하여 강화도에 보관하게 되었다. 강화도의 조선왕조실록은 몇 차례 옮겨 다니다가 지금의 위



전등사



강화 고인돌

치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침략으로 몇몇 서적이 약탈당하기도 했다. 이때 약탈당한 것 중 하나가 의궤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에서 의궤를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것이지만, 우리 것이 아닌 참 아이러니한 유물이 아닐 수 없다.

의궤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간 곳은 강화 고인돌 유적과 고려궁지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정족산 사고



고려궁지

세대는 저마다 과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급변했다. 이런 격변기 속에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고려일 것이다.

고려의 역사를 보면, 국내외 정세가 급변했다. 후삼국 통일을 시작으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등 국가의 존망 위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무너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어떻게 고려는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고려는 무엇을 구상하고 그렸을까?

그리며(Draw), 그리다(Miss)

고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사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라는 점과 고려에 대한 조선의 부정으로 조선만큼의 연구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고려의 왕이 한때는 강화도와 거제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진다. 첫 번째로 갔던 거제도와 두 번째로 갔던 강화도는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한 천도였다.

후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당시 국외 상황은 세계사적으로도 큰 격변기라 할 수 있다. 그 격변기의 중심에는 몽골

이 있었다. 몽골은 칭기즈칸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다. 거기에 고려도 포함됐지만, 최씨 정권의 기득권을 위해 강화로 천도하여 저항했다.¹⁾ 이때부터 강화도 고려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고려 왕실과 최씨 정권이 강화도에 있는 사이 몽골은 고려의 국토를 짓밟았다. 이때,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이 때문에 팔만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입에 내륙의 고려군과 백성들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가까운 역사에서 찾아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자의든 타의든 상대방에 섰거나, 저항 혹은 방관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즉, 식민지 상태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의 여론은 상대방과 협력하는 콜라보Collaborator(협력세력)와 저항하는 레지스탕스Resistance(저항) 그리고 대중Masses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각각 조휘, 김윤후, 일반 백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대중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몽골의 계속된 침략에도 최씨 정권은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기에 환도還都를 하지 않았지만, 고려 고종은 이미 환도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 정권은 환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김준과 유경은 최씨 정권을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시켰다. 최씨 정권이 몰락한 이때, 고려 고종은 강화를 선택했다. 이에 1259년 4월 태자(원종)를 몽골에 보냈는데, 같은 해 6월 고종이 사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당시 칸이었던 몽케 칸의 사망도 맞물렸다.²⁾ 즉, 몽골은

1) 『고려사절요』, 고종 19년 6월 미상, 강화로 천도하다.
 2) 『고려사절요』, 원종 1년 3월 17일, 태자가 몽고 사신 속리대와 함께 개경에 도착하다.
 3) 『고려사절요』, 원종 1년 8월 미상, 몽고 황제가 표문에 대한 윤허 조서와 새로운 연호를 내리다.

다음 칸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아릭부케가 카라코룸에서 쿠빌타이를 열어 칸으로 추대되면서 정통성에는 앞섰지만,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쿠빌라이 역시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릭부케와 쿠빌라이를 본다면, 명분과 현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태자는 명분보다 현실을 택했고, 결국 쿠빌라이가 아릭부케를 평정하고 칸이 됨으로써 고려는 문화와 왕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처럼 강화도의 왕도 역사는 최씨 정권의 권력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려 왕실은 당연히 최씨 정권에서 탈피하길 원했고, 그 교두보 역할이 몽골이자, 쿠빌라이였던 셈이다. 하지만, 충렬왕 이후부터는 고려의 쇠퇴기가 시작되었고, 암군暗君과 친원 세력이라는 새로운 기득권이 탄생했다. 그러나, 역사학자 콩트가 중세 암흑기가 있었기에 근대의 발전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한 것처럼 고려말의 문

제점은 조선이라는 대체재로 치환되었다. 즉, 고려 왕조가 들고 있던 붓이 정도전으로 넘어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거제도가 고향이다. 그래서인지 강화도 고려궁지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강화도에 고려궁지가 있던 것처럼, 거제도에는 폐왕성지가 있다. 바로 무신정변으로 추방되었던 고려 의종이 있던 곳이다. 비록 강화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왕이 있던 곳이지만, 고려 왕이 있었다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고려 의종과 고종은 자신의 말보다 무신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의종 때부터 시작된 무신정권은 원종 때가 돼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이를 보면 어떤 존재든 시작과 끝은 있다. 이 때문에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

이영명 국립중앙박물관회



거제 둔덕기성 전경



역사를 간직한
국제도시
釜山

부산은 반도의 동남단에 자리한 한국 제2의 대도시이다.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이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전국 각처와 연계되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물론 국내 최대의 무역항과 세 번째로 커다란 공항을 갖추고 있다. 부산은 남해와 동해의 두 바다를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해로를 통한 교역의 처소가 되었고 특히 일본과의 접촉이 활발하여 빈번한 교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부산이 현재의 위치에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부산 앞바다의 영도에 있는 동삼동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부산은 오래도록 이름 없는 포구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부산을 잉태한 고을은 동래東萊였다. 삼한시대에 이곳은 변한百韓에 속한 거칠산국居漆山國 또는 장산국長山國으로 불리는 땅이었는데 가야의 영토가 되었다가 훗날 신라에 병합되었다. 동래의 복천동에서는 당시의 고분들 200여 기가 발굴되어 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동래군東萊郡이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 지역은 '부산'이라기보다는 '동래'라는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또한 산과 바다의 풍광이 수려하기로 이름나 신라통일의 주역인 태종무열왕이 다녀갔다 하여 '태종대'



복천동 고분군 ©문화재청

란 이름이 생겨나고 통일신라 말기에 대학자 최치원이 다녀갔다 하여 그의 호를 딴 '해운대'란 명소도 등장하였다. 그 시절에는 나라 밖으로부터의 외침이 우려할 단계는 아니어서 해안방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고려 말기에 들어서자 왜구의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해안방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왜구 120척이 몰려와 조선 배 20여 척을 부수고 수군이 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지경에 이르러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거둬진 왜구의 간청으로 다시 화친을 맺고 염포(울산), 제포(창원), 부산포 등 세 곳의 포구를 개방하여 왜관을 설치하고 60인에 한하여 교역을 허락하였다. 이것이 왜구(일본)와의 공식적인 문호개방의 시초였으며 이때 '부산포'란 지명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했다. 당시의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진이며 현재의 부산항 지역이다. 그러나 왜구의 난동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계속되어 1547년에는 동래군을 동래도호부(동래부)로 승격시키고 해안 방어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동래읍성은 왜병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왜병은 물러갔지만 동래부의 해안방어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경상좌수영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동래부의 영역도 더욱 증강되었다.



동래부 동헌



부산항 ©한국관광공사 카멜레레스

한편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에서는 다시 화친을 요구하여 1607년 두모포(지금의 동구청 일대)에 왜관을 설치하였으며 이때부터 주기적으로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다.

이때 초량(부산진)에 대규모 왜관이 설치되면서 1678년(숙종4)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일본이 수차례 간청을 하자 조정에서는 용두산 부근에 10만여 평의 대규모 왜관 신축을 허가했다. 왜관 내부의 거류인도 500명으로 늘어나 양국의 무역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물산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인삼, 동의보감 등은 일본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일본의 음식, 건축, 풍습도 전래되고 왜관 안팎에는 두 나라의 물품을 사고파는 장이 서고, 일본 사신이 들어올 때나 조선통신사가 나갈 때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왜관의 경영에는 탈도 많았다. 조정에서는 일본 사신이 왜관에 머무르는 것만 허락했을 뿐 한양 입조를 철저히 막았고 또한 왜관 내부에도 남자만 거류를 허락하여 일본 여성은 아예 들



변박, <초량왜관의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금정산성

어울 수 없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왜관 출입문 밖의 난장에서 생필품을 사들였는데 유독 여인들이 파는 물건만 구입하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왜관 바깥에는 조선 여인들이 모여들었다. 결국 이를 악용한 조선인이 처와 딸을 몰래 왜관에 들여보내 접대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지고 왜인도 본국에 소환되는 이른바 교간(간음)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선 통역관들도 상습적으로 밀매, 국가기밀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그 폐해가 심각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산포의 초량 왜관은 200년 이상 지속되었고, 동래부와 경상우수영까지 부근에 있었으니 점점 고을의 규모가 커지고 상품 거래가 늘어났으며 풍류와 예술도 성장했다. 경상우수영을 줄여서 '수영'이라 불렀는데 '동래야류'와 '수영야류'는 국가무형문화제가 되었고, '동래학춤'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또 키 작은 동래산 파에 찹쌀, 멥쌀, 고기, 조갯살 등을 얹어 상류층이 즐겨 먹던 '동래파전'은 진상품과 제사 음식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1876년 일본과의 강압적인 '강화통상조약'의 체결로 부산포를 열어주고 말았다. 항만 근처에는 대규모 일본인 거류지가 들어섰고, 일본은 중국대륙에 진출하고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1905년 경부선 철도를 개통시켰다. 지역의 중심은 동래에서 경부선의 종착지인 부산진역 부근으로 옮겨지고 자갈밭 장터는 성대한 자갈치 시장이 되었으며 '부산부'라는 새로운 행정 구역이 등장하였다. 동래부는 일제 강점기에 동래군으로 강등되었다가 1943년 부산부에 병합되어 오랜 역사 속의 고을 이름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은 한국 진출의 첫발을 내딛는 대규모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식 온천문화도 상륙하여 동래온천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동래온천을 대단위 관광단지로 개발했고 부산 시내에서 온천을 왕복하는 전차도 생겼다. 동래온천 부근에는 관광객을 위한 호텔, 온천장 여관 등 유숙시설은 물론 관광상품점, 음식점, 일본 및 조선 기생의接客업소 등 유흥시설이 즐비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조선 기생들의 전통가무가 명맥이 이어져 남원, 진도와 함께 국



동래학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립부산국악원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서울에서도 맥이 끊긴 궁중 전통 꽃장식이며 국가 무형문화재인 궁중채화와 같은 귀중한 전통 공예도 전승될 수 있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 항을 연결하는 관부연락선이 생기면서 부산은 일본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제도시인 동시에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가 되었다. 또한 개발이 속속 진행되어 신작로가 뚫리고 근대식 건물과 조선방직회사 같은 공장 및 산업시설이 세워지고 산과 구릉을 깎아 바다를 매워 매립지를 확장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동래읍성과 관아 등 과거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적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은 광복의 기쁨을 잠시 누렸지만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을 치르며 다시 한 번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그해 8월부터 3년간 부산으로 내려와 이곳을 임시수도로 정하였고 전국 각처에서 피난민이 몰려와 머물 곳이 없어 산꼭대기까지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은 달동네가 들어섰다. 여기에 흥남 철수작전으로 난민은 물론 연합군과 미군 그리고 다국적 물품이 거래되는 국제시장까지 합세하여 부산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 와중에도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대학들이 부산에 임시교정을 개설하여 향학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 문화재들을 부산대학교로 옮겨 보관하다가 원인 모를



부산국제영화제 ©한국관광공사 카멜프레스

화재가 발생하여 조선왕조의 역대 임금 초상화인 어진이 딱 3점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 부산은 근대화의 발자취, 고대 역사의 향기, 임진왜란 및 6.25 전쟁으로 인한 처연함을 간직한 채 화려한 국제도시, 항만을 갖춘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또한 1996년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국제박람회장인 벅스코BEXCO에서 국제모터쇼, 2002 월드컵 축구 조 추첨, APEC 아세안 정상회의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동시에 천년고찰 범어사, 동래읍성과 관아, 금정산성, 동래학춤, 수영야류, 궁중채화 등 전통 문화의 자취를 간직해 왔다. 이처럼 부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 유적을 지닌 동시에 근현대의 발전을 이룩한

산업과 교역의 도시, 그리고 산과 바다의 풍광마저 수려하여 국내외의 손꼽히는 관광도시가 되었으며 소설, 영화, 가요, 음식, 공연 등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는 예향의 도시가 되어 오늘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궁중채화, 홍벽도화준,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2023년도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시상

■ 일시 : 2023. 5. 9.(화), 11:3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 수상 논문명 및 전시도록과 수상자

구분	분야	논문명	수상자	게재 및 논문량
금관상 (3명)	고고학	신라 성곽 연구-수창군 호국성의 위치 비정	조효식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신라문물집15집 26P
	고고학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唐文書가 부착된 삿자리(蓆席)의 복원-卍 魯番文書 및 大谷文書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영우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중국고중세사연구63집 44P
	미술사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佛敎信行 내용과 『周易』 卦象 표현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관	불교미술사학 39P
은관상 (7명)	고고학	고대 갑주의 의례적 성격- 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김혁중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한국고고학보2022/2 18P
	고고학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문양 소재 연구	윤중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동원학술논문집23집 50P
	미술사	조선후기 선원전 복벽 모란도 고찰	명세라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미술자료 26P
	미술사	낭산의 두 관음보살상 연구	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신라문물연구15집 33P
	역사학	고려시대 시책(諭冊)의 기원과 활용 양상	안선규 인동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역사와 현실 33P
	역사학	조선시대 고지도 간행 에 대한 試論 : 상업판매와 수요층을 중심으로	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고지도연구 20P
	보존 과학	부여 규암리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형상과 제작기법	신용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김지호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Journal of Korean Art & Archaeology 16 12P
전시 도록 (3기관)	전시도록 명칭		기관	
	조선무기 특별전 화력조선(특별상)	국립진주박물관	217P	
	백제 귀엣-고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특별상)	국립공주박물관	232P	
	금란지교, 위대한 동행(장려상)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258P	



백자 산 모양 향꽃이, 기증실

바람

내가 그리워져
안부를 묻고 싶어질 때
저 깊은 향으로 그리움을 행궤야지
푸른 기운으로
영혼 깊은 곳까지 뻗아져야지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 회 장** 윤재륜
-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 상임고문** 신성수
- 당 연 직** 윤성용
-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옥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 감 사** 김교태 김재훈
-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홍석조 홍정욱	(주)BGF리테일 회장 올가니카 회장	조영준 최정훈 최철원 한혜주 허윤희 홍정혁 효 경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장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BGF 에코머티리얼즈 사장 회원
주작회원 김정태 윤광자	금관회원 강덕수 경 원 권준일,구재선 권지혜 김남연 김대환 김승겸 김재훈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운 성태은 송영숙 양홍석 우찬규 유상욱 이교상 이규식 이명희 이수경 이정용 이주한 이택경 임종훈 장인우 최용선 정명훈 정재봉	전 (주)ST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주)동훈 대표이사 (주)슈퍼리아슈퍼리어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en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대전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대신증권(주) 부회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삼보모터스그룹 사장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MashupAngels 대표 한미약품 사장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은관회원 강승모 강원기 김영평 김민수 김영희 김은혜 김종한 김태훈 권택환 남태훈 류방희 박경진 박선주 박영정 박지원 백진우 서재량 성필호 송 철 신병찬 심종현 유승희 유창종 윤현경 이우일 이상재 임지선 정은미 주신희	KP그룹 부회장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주)에을 이사장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회원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주)종합전기 대표 두원중공업 부사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택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영은미술관 관장 V&S자산운용 상무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주)동성케미컬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쿠박물관 부관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식회사 유니드 대표이사 부사장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보혜양조(주)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함영준
홍정도
홍정인
홍진기
현지호
황정환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마리오 아울렛 전무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주)케이지에프 전무

청자회원

고기영
구동휘
구본권
구본상
구본욱
구본혁
구용수
구원경
구원희
구은성
구현영
권재현
김진호
김경영
김경희
김낙승
김녕자
김동관
김동선
김동준
김동철
김두식
김미원
김상운
김성남
김성환
김재연
김연규
김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윤수
김인순
김주원
김재열
김정주
김종학
김지태
김태현
김택진
김현강

(주)금비 부회장
LS ELECTRIC 대표이사, 부사장
LS MnM 전무
LIG 회장
(주)LK 대표이사 사장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닥터구의원 원장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한성플랜지 이사
LS 네트워크 이사
(주)LX MDI 대표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반도건설 부사장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주)에을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한화 갤러리아/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 전무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주)서브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EKK Food Group 부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주)라벨 이사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이사
서양화가
화성피앤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신양회 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글로벌 대체부문 부문장/전무
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인젠트 전무
오리온 상무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민병철
민준기
박범준
박선경
박성재
박재상
박재연
박정빈
박정원
박주원
박준영
박혜춘
박혜성
방정오
배운식
봉 옥
서경선
서동임
설윤석
승지수
손원탁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춘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성진
이승용
이영순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현
이윤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준우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해진

민병철
민준기
박범준
박선경
박성재
박재상
박재연
박정빈
박정원
박주원
박준영
박혜춘
박혜성
방정오
배운식
봉 옥
서경선
서동임
설윤석
승지수
손원탁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춘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성진
이승용
이영순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현
이윤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준우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해진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네티온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번호사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동국대학교 총장
성호전자 대표이사
회원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회원
시몬느 에프씨 대표이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회원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제인모터 대표이사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대명건설 대표이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동화기업 부회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이사
회원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사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프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정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코오롱모빌리티 그룹 대표이사 사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급토갤러리 관장
(주)에이티넵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알스케어 대표이사
(주)농능 경영총괄 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대륙종합건설 상무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토키리아 대표
NAVER GIO

이 력
임채현
장동진
장선익
장성진
장승준
장우진
양승화
양현재단
진영채
진윤수
정영수
정영해
정의신
정재호
정지이
정해인
조병준
조연주
조영미
조재현
조희경
진재욱
차가원
차원희
천석규
(주)조광건설 회장
최성환
최세훈
최원준
최원영
최인선
최재원
최창화·정혜숙
최혜옥
최훈학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한승희
한영재
허정석
허진수
허지홍
현명관
호종일
호창성
홍법석
홍석표
홍원복,김근호
홍인관
홍정국
홍진석
황인규

회원
보혜양조(주) 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동국제강(주) 전무
글랜우드프라이빗에퀴티 상무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대한다업(주) 이사
(주)홀딩스(주)두성테크 부사장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회원
성암고서박물관장
한솔케미칼 부회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회원
(주)화요 부사장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 그룹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주)조광건설 회장
SK네트웍스 사장
(주)카카오/카카오페이 보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L Catterton 상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회원·자원봉사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중앙에너지스 전무이사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 파리카라상 사장
GS리테일 상무
회원
호성홍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회원
아이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BGF 대표이사 사장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대표이사

*2023. 5. 31. 기준



덕천서원입구